

技術導入代價의 決定要因

李 元 曠
金 在 亨

技術의 導入者는 그 代價로서 技術供與者側의 直接費用뿐만 아니라 市場進出 機會의 喪失을 보상하여 주는 間接費用 및 技術市場의 不完全함에 따른 獨占의 利潤까지 支拂하여야 한다. 本稿에서는 技術導入代價에서 直接費用, 間接費用 및 獨占의 利潤이 차지하는 比重을 技術導入業體에 대한 設問調査를 통하여 밝히고, 獨占의 利潤의 決定要因을 分析하였다.

實證分析 結果에 의하면, 첫째 獨占의 利潤의 比重은 技術의 性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平均的으로 全體 技術代價에서 약 70% 以上을 차지하고 있고, 둘째 獨占의 利潤의 比重의 決定要因은 技術이 開發된 時點에서 移轉될 때까지의 時差, 世界的으로 同一技術의 潛在的 供與可能企業의 數 및 技術이 日本으로부터 導入되었는지의 與否를 包含한다. 즉, 技術이 開發된 후 導入時期까지의 기간이 길수록, 技術의 潛在的 供與可能企業의 數가 많을수록 獨占의 利潤의 比重은 낮아지며, 日本의 技術供與者는 다른 나라의 供與者에 비하여 보다 높은 獨占의 利潤을 代價에 포함시킨다.

成되어 있는가에 있다 하겠다. 즉 技術導入代價에서 直接費用, 間接費用 및 獨占의 利潤의 構成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는 것이다. 여기서 直接費用이란, 기술자파견 등에 소요되는 경비 및 변호사비 등 技術을 供給하기 위하여 明示的으로 소요되는 資源費用을 의미하며, 間接費用이란 技術供與를 하게 됨에 따라 市場의 減少 및 直接投資機會의 喪失 등에 따르는 손해, 즉 機會費用을 지칭한다. 獨占의 利潤이란 技術移轉市場

I. 序

技術導入과 관련된 學術的 또는 政策樹立上 論爭의 焦點은 技術에 대한 代價가 어떻게 構

筆者: 李元曠—本院 研究委員, 金在亨—本院 研究員

* 本稿를 읽고 有益한 批評과 提言을 해주신 韓國科學 技術院 李軫周 教授와 西江大學校 池龍熙 教授께 감사 드린다.

이 不完全競爭의이기 때문에 技術을 獨占的으로 소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利潤을 말한다¹⁾.

만약 技術의 代價가 대부분 이에 따른 直接費用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技術導入은 其他 서비스의 交易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間接費用이나 獨占的 利潤이 技術의 代價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높다면 技術導入은 一般財貨나 서비스의 交易과는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지며, 이에 대한 政府政策의 效果 또한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技術導入費에 대한 所得稅를 賦課한다고 가정할 때 前者일 경우 稅額은 궁극적으로 導入者가 負擔하게 되나 後者일 경우는 所得稅는 技術供與者의 獨占的 利潤으로부터 負擔되기 때문이다.

技術導入代價에서 獨占的 利潤이 차지하는 比重과 그 決定要因에 관한 研究는 주로 技術供與者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예컨대 그중 가장 대표적인 研究라 할 수 있는 Contractor (1981)에서는 技術을 導入하는 多國籍企業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하여 直接費用이 技術導入代價에서 차지하는 比重과 그 決定要因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技術을 供與받는 측에서 評價된 獨占的 利潤의 相對的 크기와 그 決定要因에 대한 研究는 별로 되지 않고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의 技術導入企業을 대상으로 한 實證分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 技術導入의 고유한 特性을 밝혀 줄 수 있는 研究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本稿의 目的은 이러한 點에 착안하여 첫째 技術導入代價에서 直接費用, 間接費用 및 獨

占的 利潤의 構成을 밝히며, 둘째 技術導入代價中 獨占的 利潤의 比重을 決定하는 變數는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 있다. 獨占的 利潤의 比重을 결정하는 變數로서는 技術의 開發時期, 潛在的 技術供與可能企業의 數, 潛在的 技術導入企業의 數, 技術導入企業의 規模, 技術의 供與國 및 導入先과의 合作投資 與否 등이 고려되었다.

技術導入企業을 대상으로 한 本設問調査를 근거로 한 實證分析結果에 의하면, 첫째 예상되었던 바와 같이 技術導入代價에서 獨占的 利潤이 차지하는 比重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獨占的 利潤의 比重은 고려된 여섯 가지의 變數中 技術의 開發時期, 潛在的 技術供與可能企業의 數 및 導入國이 日本이나 그의 國家이냐의 與否에 따라 統計的으로 有意하게 영향을 받음이 밝혀졌다. 부연하면 獨占的 利潤의 比重은 導入技術이 開發된 지 오래된 것일수록, 潛在的 技術供與可能企業 數가 많을수록 낮으며, 또한 日本에서 導入된 技術이 餘他地域에서 導入된 技術보다 獨占的 利潤의 比重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 章에서는 實證分析을 위한 資料가 어떻게 蒐集되었으며 分析對象企業의 特徵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第Ⅲ章에서는 技術導入代價中 直接費用, 間接費用 및 獨占的 利潤이 어떻게 構成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고, 第Ⅳ章에서는 技術代價에서 獨占的 利潤이 차지하는 比重의 決定要因을 多重回歸分析을 통하여 찾는다. 마지막 第Ⅴ章에서는 實證分析 結果에 대한 要約 및 示唆點이 論議된다.

1) 獨占的 利潤은 研究開發에 投入된 노력에 대한 報償으로도 간주될 수 있음.

II. 資 料

本稿에서 사용된 資料는 著者が 1985年 중에 실시한 技術導入業體에 대한 設問調査에 근거하였다. 調査對象은 1982年 기간중에 技術을 導入한 모든 企業인바, 總 172 個의 設問紙를 郵便으로 發送하여 118 個 企業으로부터 이를 회수하였으나 그 중 使用이 不可能한 4 個를 제외하였기 때문에 실제 實證分析에 이용된 標本企業은 114 個이다.

〈表 1〉 技術導入件數의 産業別 分布

産 業	件 數	構成比(%)
食 料 品	7	6.1
織 維	9	7.9
製 紙 · 펄 프	1	0.9
化 學	7	6.1
石 油 고 무 化 學	5	4.4
非 金 屬 鑛 物	1	0.9
1 次 金 屬	3	2.6
一 般 機 械	7	6.1
電 氣 · 電 子	33	28.9
輸 送 機 械	15	13.2
其 他	26	22.8
計	114	100.0

〈表 2〉 技術導入先의 國別 分布

國 家	件 數	構成比(%)
日 本	57	50.0
美 國	20	17.5
西 獨	9	7.9
英 國	6	5.3
프 랑 스	6	5.3
其 他	16	14.0
計	114	100.0

標本企業의 産業別 分布는 〈表 1〉과 같으며 이로부터 標本企業은 電氣 · 電子, 機械, 化學 등 技術集約도가 높은 産業에 많이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技術導入先의 國別 分布를 보면 日本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美國, 西獨의 順이다. 標本企業에서 나타나고 있는 産業別 · 國別 分布는 全技術導入業體를 대상으로 한 分布와 유사하며, 이로부터 標本企業은 全技術導入企業을 代表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標本調査로부터 알 수 있는 技術導入의 特徵은 세 가지로 要約될 수 있다. 첫째, 技術導入은 外國企業이 子會社 또는 合作會社에 제공한 技術에 대한 代價를 회수하는 手段으로 사용된다. 즉 技術에 대한 代價를 配當金뿐만 아니라 로얄티로서 회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標本企業中 技術導入先과 合作投資인 경우는 전체의 8.8%인바, 이는 外國人 投資企業이 純國內企業보다 상대적으로 技術導入이 많음을 시사한다. 둘째, 技術導入은 外國人投資에 대한 政府規制를 迂廻하는 하나의 手段이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技術導入에 따라 生産된 製品은 전체의 43%가 外國人投資가 禁止된 産業이다. 技術導入業體의 세번째 特徵은 研究開發이 매우 활발하다는 점이다. 標本企業의 總賣出額 對比 研究開發投資額 比率의 平均은 2.7%로서 全體製造業의 平均 總賣出額 對比 研究開發投資額 比率 1.0%(1984年)에 비하여 2배 이상 높다. 또한 自體研究所를 보유한 企業이 57%(65件)로서, 技術導入企業은 自體研究도 활발함을 알 수 있다.

Ⅲ. 技術導入代價의 構成

技術의 導入代價는 技術을 移轉받은 측이 누릴 수 있는 潛在收益性에 의하여 좌우된다. 즉 技術導入에 따라 얻을 수 있는 潛在收益性에서 技術의 移轉에 소요되는 導入者와 供與者의 直·間接費用을 뺀 差額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協商의 대상인바, 供與者의 市場支配力이 크면 그 差額은 대부분 技術供與者가 技術代價로서 회수하게 된다. 반면 技術導入者의 市場支配力이 우세하면 그 差額은 技術導入者가 갖게 되고 技術의 代價는 技術供與者의 直·間接費用을 보상하는 水準에서 決定된다. 일반적으로 技術供與者의 市場支配力은 獨·寡占的으로 보유하고 있는 技術로부터 기인하고, 技術導入者의 市場支配力은 自國市場과

國內生産 與件에 대한 풍부한 專門知識과 自國市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獨·寡占의 위치에서 비롯된다.

技術의 供與者나 導入者는 상대방에게 소요되는 直·間接費用 및 潛在收益性을 評價하고 이를 協商過程에서 활용하게 된다. 따라서 技術供與者나 導入者는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나 상대방에 관한 各種情報을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設問調査에서는 技術導入者에게 供與者側의 直接·間接費用이 전체 技術代價에서 차지하는 比重을 물었는바, 그 결과는 <表 3>, <表 4>와 같다.

<表 3>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技術導入者들의 見解에 의하면 전체 技術導入代價中 直接費用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그 비율의 平均값은 22.1%이며 最頻값은 0~5% 區間이다.

間接費用이 차지하는 比重은 더욱더 낮음을 알 수 있어 10% 미만이라고 응답한 企業이 應答者의 83.0%에 달하였다. 따라서 直接費用과 間接費用을 제외한 獨占的 利潤이 全體技

<表 3> 技術代價中 技術供與者의 直接費用의 比率

技術代價中 直接費用比率(%)	件 數	構成比(%)
0~ 5	44	38.6
6~ 10	15	13.2
11~ 20	15	13.2
21~ 30	10	8.8
31~ 40	5	4.4
41~ 50	5	4.4
51~ 60	3	2.6
61~ 70	10	8.8
71~ 80	2	1.8
81~ 90	2	1.8
91~100	3	2.6
計	114	100.0

註：“技術供與者의 直接費用이 전체 技術代價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設問에 대한 有效應答 결과임.

<表 4> 技術代價中 技術供與者의 間接費用의 比率

技術代價中 間接費用比率(%)	件 數	構成比(%)
0	62	54.4
1~10	16	14.0
11~20	6	5.3
21~40	3	2.6
41~60	2	1.8
61% 以上	5	4.4
無 應 答	20	17.5
計	114	100.0

註：“技術供與者는 韓國에 대해 輸出이나 直接投資를 못 하게 됨으로써 技術供與에 따르는 損害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間接費用이 技術代價에서 차지하는 比率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設問에 대한 結果임.

術代價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平均 70% 이상 된다고 보겠다.

이미 언급된 바 있는 Contractor(1981)의 연구에서도 技術代價에서 차지하는 獨占의 利潤의 비중이 매우 높음이 밝혀진 바 있다. 즉 「콘트랙터」는 技術供與契約의 經驗이 있는 102個의 美國企業을 對象으로 技術代價의 費用構成을 조사하여, 直接費用이 全體技術代價中 차지하는 比重이 平均 5% 미만이란 結果를 얻었다.

또한 「콘트랙터」는 技術代價의 구성요소인 直接費用, 間接費用, 獨占의 利潤에서 直接費用 對比 全體技術代價 比率를 'M'(Multiple)으로 定義하여, 技術代價中 直接費用에 비하여 獨占的 利潤 比率이 클수록 M값도 높다고 하였다²⁾. 「콘트랙터」가 102個 美國 技術供與企業을 對象으로 구한 M과 <表 3>의 114個 우

리나라 技術導入業體에서 얻은 本調査의 M을 比較하면 <表 5>와 같다.

先進國 技術供與企業들을 대상으로 한 「콘트랙터」의 M값이 우리나라 技術導入業體를 對象으로 한 M값보다 훨씬 큰 바,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첫째, 「콘트랙터」의 研究에서는 先進國間의 技術去來가 주종을 이루는 데 반하여 本研究의 대상은 先進國으로부터 後進國으로의 技術移轉이다. 즉 前者는 後者에 비해 상대적으로 高級技術 혹은 尖端技術의 거래가 주종을 이루므로 그만큼 技術代價에서 차지하는 獨占的 利潤도 높을 것이다. 둘째, 本調査 對象企業이 이미 決定된 技術導入에 대한 妥當性を 提高하기 위하여 技術代價中 技術供與者의 獨占的 利潤의 比重을 일부 過小評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本調査에서 各產業別 M값은 <表 6>과 같은데, 化學分野를 제외한 대부분의 產業에서 M은 비슷한 값을 보인다. 化學分野의 M값이 높은 결과는 特許權이 강하게 保護되는 産業일수록 M이 높다는 「콘트랙터」의 결과와도 一致한다³⁾.

<表 5> 'M'값의 比較

	「콘트랙터」	本調査
'M'	35.67	4.52

<表 6> 產業別 'M'값

產 業	'M'
食 料 品	5.24
織 維	5.24
化 學	12.66
石 油 高 分 化 學	4.26
機 械	3.40
電 氣 · 電 子	5.62
輸 送 機 械	5.21

註: 5件以上の 應答를 보인 產業들에 대해서만 'M'값을 구하였음.

Ⅳ. 獨占的 利潤의 決定要因

1. 假說의 提起

技術代價에서 獨占的 利潤이 차지하는 比重에 影響을 주리라고 예상되는 變數로는 다음의 여섯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技術이 開發된 時期가 오래된 것일수

2) $M = \frac{\text{直接費用} + \text{間接費用} + \text{獨占的利潤}}{\text{直接費用}}$

3) 「콘트랙터」에서는 製藥業에서 M이 가장 높게 나타남.

록 獨占的 利潤 比重은 낮을 것이다. 이는 개발된 지 오래된 技術은 技術의 普遍化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며 代替性을 갖는 技術 또한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둘째, 技術의 潛在的 供與可能處가 많을수록 獨占的 利潤 比重은 낮을 것이다. 供與可能處간의 競爭은 技術의 價格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째, 技術을 導入하여 생산되는 製品의 市場이 競爭의 일수록 獨占的 利潤 比重은 높을 것이다. 技術의 價格이 供與企業과 導入企業간의 協商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면 潛在的 導入企業數가 많을수록 導入側의 協商力은 弱화되기 때문이다.

네째, 導入企業의 規模가 클수록 獨占的 利潤 比重은 낮을 것이다. 이는 앞에서 이미 언급된 協商過程상의 交渉力과 관련된 것으로 大企業은 中小企業보다 技術에 대한 情報가 풍부하여 技術導入協商에서 잘 대처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獨占的 利潤 比重은 技術이 어디로부터 導入됐는가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國

家間에 전반적인 市場構造上的 차이가 존재하며 그것이 技術代價의 형성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주요 技術導入國中の 하나인 日本은 美國이나 유럽 등보다는 일반적으로 寡占的 市場構造를 갖는다고 본다면 技術代價에서 獨占的 利潤 比重이 더 높으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여섯째, 獨占的 利潤의 比重은 導入企業이 供與企業의 子會社이나 아니냐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財貨의 交易에서 母企業과 子企業間的 移轉價格行爲(transfer pricing behavior)는 잘 알려진 바 있으며 그와 유사한 행태가 技術의 交易에서도 일어나리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技術代價에는 税金이 부과되지 않으나 配當金에는 税金이 賦課되기 때문에 母企業은 技術代價를 높게 책정하여 租稅를 回避하려 할 것이며, 이는 獨占的 利潤의 比重을 높이는 要因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2. 假說의 檢證

앞에서 提起된 假說은 다음과 같은 函數關係로 표현될 수 있다.

$$RR=f(AGE, NOS, NOD, SIZ, JAP, AFF) \dots \dots \dots (1)$$

여기서,

RR : 全體 技術代價中 獨占的 利潤이 차지하는 比重(%)

AGE : 技術이 開發된 후 導入時期까지의 期間⁴⁾

NOS : 技術의 潛在的 供與可能企業의 數⁵⁾

NOD : 導入業體의 國內 競爭企業의 數⁶⁾

SIZ : 導入企業이 大企業이면 1, 中小企業이면 0인 「더미」變數⁷⁾

-
- 4) 技術이 開發된 후 導入時期까지의 期間은, 設問 “導入技術은 언제쯤 開發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應答項目 數值를 사용하였음(應答項目: ① 1年以內 ② 1~3年前 ③ 3~6年前 ④ 6~10年前 ⑤ 10~20年前 ⑥ 20年以前).
 - 5) 技術의 潛在的 供與可能企業의 數는, 設問 “導入技術의 供與可能處는?”에 대한 應答項目 數值를 사용하였음(應答項目: ① 貴社가 導入한 國만이 保有하고 있다. ② 全世界의으로 2~5個社 ③ 全世界의으로 6~9個社 ④ 全世界의으로 10~19個社 ⑤ 全世界의으로 20個社 以上).
 - 6) 導入業體의 國內 競爭企業의 數는, 設問 “貴社製品과 類似한 製品을 生産하는 國內 競爭業體數는?”에 대한 應答項目 數值를 사용하였음(應答項目: ① 없다. ② 1~2個社 ③ 3~5個社 ④ 6~9個社 ⑤ 10~19個社 ⑥ 20個社 以上).
 - 7) 從業員數 300人 以上을 大企業, 300人 미만을 中小企業으로 分類하였음.

JAP : 技術供與國이 日本이던 1, 其他地域이던 0인 「더미」變數
AFF : 導入先과 合作企業이던 1, 아니면 0인 「더미」變數

式 (1)로부터 回歸分析을 위하여 定式化된 模型은 다음과 같다.

$$RR = \beta_0 + \beta_1 AGE + \beta_2 NOS + \beta_3 NOD + \beta_4 SIZ + \beta_5 JAP + \beta_6 AFF + \epsilon$$

.....(2)

따라서 앞에서 提起된 여섯 가지 假說의 檢證은 다음과 같은 不等式을 檢證하는 것으로 歸着된다.

$$\beta_1 < 0, \beta_2 < 0, \beta_3 > 0, \beta_4 < 0, \beta_5 > 0, \beta_6 > 0$$

第Ⅲ章에서 蒐集된 資料를 이용하여 式 (2)를 多重回歸分析에 의하여 推定한 結果는 <表 7>과 같다.

推定結果에 의하면 $\beta_1, \beta_2, \beta_5$ 만이 統計적으로 有意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實證分析 結果로부터 우리는 첫째, 둘째 및 다섯째 假說만이 統計적으로 有意하게 支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연하면 技術이 開發된 후 導入時期까지의 기간이 길면 길수록, 技術의 潛在的 供與可能企業 數가 많으면 많을수록 獨占的

利潤 比重은 낮아진다. 또한 일반적으로 日本에서 導入된 技術은 餘他地域으로부터 導入된 技術보다 獨占的 利潤 比重이 높다는 假說이 支持되었다.

반면에 그 외의 變數에 대한 回歸係數는 統計的인 有意性이 없음을 물론 *SIZ, AFF*變數의 係數에서는 豫想되지 않은 符號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結果는 네째 및 여섯째 假說이 틀렸다고보다는 本稿에서 이용된 資料만으로는 이들 假說에 대한 適否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들 假說에 대한 檢證은 추후의 研究課題로 남는다.

V. 要約 및 結論

本稿에서는 技術의 代價에서 直接費用, 間接費用 및 獨占的 利潤이 차지하는 比重을 技術導入業體를 대상으로 한 設問調査에 의하여 밝히고 그 比重을 決定하는 要因을 찾아보았다. 豫想되었던 바와 같이 技術導入代價 중에서 獨占的 利潤의 비중이 매우 높아 技術의 市場은 競爭的이기보다는 獨占的인 성격이 뚜렷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獨占的 利潤의 比重을 決定하는 가장 중요한 要因은 導入된 技術의 屬性和 관련된 變數인, 技術이 開發된 후 導入되기까지의 期間과 潛在的 技術의 供與可能處임이 밝혀졌다. 이와 같은 結果는 理論적으로 導出될 수 있는 結論과 一貫性을 가질 뿐 아니라 外國에서 技術供與業體를 대상으로 한 分析結果와도 同一하다.

實證分析 結果中 특기할 내용은 技術의 供

<表 7> 回歸係數의 推定

獨立變數	回 歸 係 數	t-統 計 值
<i>AGE</i>	-5.918*(β_1)	-2.5453
<i>NOS</i>	-5.172*(β_2)	-2.8682
<i>NOD</i>	1.812 (β_3)	0.9458
<i>SIZ</i>	1.693 (β_4)	0.3120
<i>JAP</i>	12.050*(β_5)	2.5232
<i>AFF</i>	-5.111 (β_6)	-0.6222

R^2 : 0.1903

註 : *는 $\alpha \leq 0.01$ 에서 有意.

給源이 日本일 경우가 그 이외의 경우보다 獨占的 利潤의 比重이 높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美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과 日本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을 비교하면 件當 代價支給은 美國으로부터의 導入의 경우가 훨씬 높다. 따라서 技術의 代價中 獨占的 利潤이 차지하는 比重 또한 美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 높을 것으로 豫想되거나 實證分析에서는 전혀 相反된 結論이 導出되게 된 것이다. 즉 技術의 屬性과 관련된 要因을 제거하고 나면 日本으로부터 導入된 技術에서 獨占的 利潤의 比重이 오히려 커진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美國으로부터 導入된 技術의 代價가 日本의 그것보다 높은 원인은 獨占的 利潤의 差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技術의 種類가 다르기 때문이란 것이다. 따라서 開發時期나 供給條件이 비슷한 技術에 대하여 日本은 다른 나라보다 많은 獨占的 利潤을 代價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國家間 技術價格策定이 달라지는 원인이 무엇인지는 확실치 않으나 그에 대한 說明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첫째,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일본이 歐美諸國보다는 獨寡占的인 市場構造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企業間의 協力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技術販賣에서 목시적인 談合이 歐美諸國에서 보다는 용이하다. 둘째, 需要側面에서 우리나라 企業은 日本이 보유하고 있는 技術에 대한 情報은 많이 가지고 있는 반면에 歐美諸國

의 技術情報은 상대적으로 어둡다. 따라서 技術을 가장 값싸게 供給할 수 있는 대상을 全世界의으로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結論의으로 供給側과 需要側面 모두에 원인이 있고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인이 上昇作用을 하여 나타난 結果라고 해석할 수 있다.

技術導入과 관련된 구체적인 政策에 대한 論議는 本稿의 범위에서 벗어나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⁸⁾. 다만 本稿에서 導出된 結果는 技術導入과 관련된 政策의 效果分析에 有用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落後技術導入이나 重複技術導入에 관한 爭點의 核心은 그러한 技術의 代價가 어떻게 構成되어 있느냐에 달렸으며, 技術導入代價에 대한 租稅를 賦課할 경우 이를 궁극적으로 누가 負擔하느냐 또한 技術代價에서 獨占的 利潤의 比重에 좌우된다 하겠다. 그 이외에도 技術情報의 流通問題, 外國人 投資企業의 移轉價格行爲 등에 관한 政策論議에도 本研究의 結果가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本研究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弱點은 技術代價의 構成을 技術導入側에 대한 設問調査에 근거하였다는 점이다. 따라서 設問作成者의 主觀性이 개입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理想的으로는 技術의 導入者와 供與者를 짝지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設問調査보다는 직접 인터뷰를 통한 調査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바, 이와 같은 企業單位의 深層研究가 本研究를 계기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8) 技術導入과 관련된 政策課題에 대한 論議는 池龍熙·李元暎(1986)을 參照.

▷ 參 考 文 獻 ◁

- 池龍熙·李元暎, 「技術導入契約의 特性과 政策方向」, 『韓國開發研究』, 第8卷 第1號, 1986 春, pp. 2~20.
- 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技術導入實態에 관한 深層研究』, 1985. 7.
- Contractor, F.J., *International Technology Licensing: Compensation, Costs, and Negotiation*, Lexington, Mass.: Lexington Books, 1981.
- _____, "The Profitability of Technology Licensing by U.S. Multinationals: A Framework for Analysis and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Fall 1980, pp. 40~63.
- _____, "The Composition of Licensing Fees and Arrangements as a Function of Economic Development of Technology Recipient Nation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Winter 1980, pp. 47~62.
- Kopits, George F., "Intra Firm Royalties Crossing Frontiers and Transfer Pricing Behavior," *Economic Journal*, Vol. 86, No. 344, Dec. 1976, pp. 791~805.
- Mansfield, E. and A. Romeo, "Technology Transfer to Overseas Subsidiaries by U.S.-based Fir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95, No. 4, Dec. 1980, pp. 737~750.
- Teece, D., "Technology Transfer by Multinational Firms: The Resource Costs of Transferring Technological Know-how," *Economic Journal*, Vol. 87, No. 346, Jun 1977, pp. 242~261.
- Telesio, Piero, *Foreign Licensing Policy in Multinational Enterprise*, D.B.A. thesis, Harvard, Feb. 1977.